

중국에서의 朴趾源 연구 현황과 전망

朴 香 蘭*

차 례

- | | |
|--------------|------------------|
| 1. 서론 | 4. 박지원의 소설연구 |
| 2. 박지원의 사상연구 | 5. 박지원연구의 과제와 전망 |
| 3. 박지원의 산문연구 | |

국문초록

7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학계의 박지원연구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간다. 박지원 연구는 이제 한국학연구자뿐이 아니라 중국문학연구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 본 고에서는 중국학계의 박지원연구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중국학계에서의 박지원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박지원의 연구초기부터 중국학계에서는 『열하일기』가 실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대표 저술이라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연행록 문헌군의 실체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열하일기』를 ‘여행문학’, ‘기행문학’, ‘여행자문학론’ 등의 입장에서 알맞은 문학적 접근 방법론을 모색하고 중국의 실상을 탐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소설이나 산문연구도 특정

* 廣東外語外貿大學 東方語言文化學院 副教授

작품에 치중되어, 청대의 소설과 박지원의 소설 비교연구라든지, 경향이 비슷한 작가와의 비교연구, 그리고 구체적 역사적 규명문제도 극히 드물다. 이제 한, 중, 일 세 나라의 문학을 일종의 수평적 비교의식 아래 함께 검토함으로써, 세 나라문학이 어떻게 근대성을 지향해 왔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 박지원, 중국, 연구현황, 전망

1. 서론

중국학계¹⁾에서 박지원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정판룡²⁾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21세기까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100여 편의³⁾ 학술논문을 산출하였다. 근대적 각성과 함께 제기된 박지원에 대한 관심은 생애부터 시작하여 작품내용과 성격, 사상, 문학적성, 근대의식, 비교연구, 서술기법, 구조분석 등 작품 전반에 걸쳐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는가 하면

1) 본고에서 말한 중국학계 연구는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를 지칭한다. 한국에서 발표한 중국학자들의 일부 대표적 논문은 연구에 포함하긴 했지만 일일이 선별하기 어려우므로 검토대상에 넣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2) 鄭判龍, 「조선 실학과문학과 박지원의 소설」, 『연변대학학보』 1978년 제3호, 연변대학학보편집부.

3) 중국에서의 박지원 연구현황에 대하여 張麗娜(『중국에서의 박지원연구』, 『當代韓國』, 2012.1.)는 2012년까지 4편의 학위논문과 41편의 학술논문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41편은 단지 논문제목에 “박지원”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만 통계한 것이다. 사실 중국학계에서의 박지원에 대한 연구는 41편의 논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한문화교류연구, 청대역사연구, 비교문학연구, 중국인식연구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박지원 연구를 포함한다면 200편 가까이 된다. 여기에 2009년 許明哲의 박사학위논문(『朴趾源 “熱河日記”의 문화연구』, 연변대학.)과 2013년 張麗娜의 『“열하일기” 연구』(중양민족대학, 2013.5)를 포함한다면 『열하일기』연구 박사학위 논문만 3편이 된다.

역사, 철학, 지리, 건축 등 영역에서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 그야말로 다양한 연구를 산출하였다. 특히 1990년 김병민의 『조선중세기 북학파문학 연구』가 출판되면서 중국한문학계에서는 박지원연구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박지원을 주목하게 된다. 그중 단연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은 『열하일기』이다. 『열하일기』는 그 방대한 편폭과 진보적 사상, 그리고 탁월한 표현력으로 명실공히 박지원 문학의 대표작으로 공인된 작품이다.

중국에서의 박지원 연구는 사실 『열하일기』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 편의 박지원 관련 박사학위 논문 전부 『열하일기』연구였다. 사실로도 중국학자들이 『열하일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학계에서 『열하일기』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중국의 사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청조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학자들이 명나라를 그리워하며 청나라를 배척하는 모습, 피지배자로서 청나라문인들이 만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청조의 제반양상은 연행록에서만 확인된다. 예측을 벗어나는 연행사들의 진솔한 기록은 중국학자들로 하여금 타자의 시선, 그리고 주변국 문헌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고 아시아와 중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연행록 연구 붐이 일어났던 것도 이런 사실과 관계된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중국에서의 박지원 연구를 재정리하고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경향에 따른 향후 과제를 논의해보려고 한다.

2. 박지원의 사상연구

1945년 이후 한국은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근대화’프로젝트에서 실학을 자국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보았고 실학의 학문적 성격은 다분

히 ‘근대지향’으로 해석되었다.⁴⁾ 국학운동에서 실학에 주목하면서 박지원이 대표적 인물로 추앙되었고 박지원 연구는 한국의 사상사, 학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초창기 한국학연구의 중심인 연변대학 학자들도 박지원을 소개하기에 앞선다. 정판룡은 『조선실학과문학과 박지원의 소설』(『연변대학학보』, 1978)에서 처음으로 중국학계에 조선의 실학을 소개함과 동시에 박지원을 18세기 조선의 가장 뛰어난 실학파이고 현실주의 작가이며 그의 소설은 조선봉건사회의 모순과 양반통치의 부패함을 폭로하였고 그의 실학사상은 조선유물주의미학사상의 전통을 풍부히 하였다고 하였다. 任范松은(『박지원의 유물주의미학사상』, 『연변대학학보』, 1981년 第4期.) 박지원이 당시 양반사대부의 주자성리학에서 비롯된 허무한 모방주의와 형식주의 등 유심주의 미학사상을 반대하고 조선유물주의 미학을 발전시켰다고 하였으며 朱七星(『박지원의 철학사상연구』, 『철학연구』, 1981년 第7期) 역시 박지원의 작품을 유물주의자연관과 진화론사상, 변증법적 사상, 유물주의 可知論, 윤리도덕관과 유물주의 미학사상에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박지원을 조선 유물론과 자연과학전통을 계승한 탁월한 철학자로 평가하였다. 박지원의 초창기 연구는 당시 중국의 단일하고 경직된 학술사유패턴의 영향으로 유물주의 심미관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단일하고 모식화된 연구동향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김병민의 『조선중세기 북학과문학연구』(연변대학출판사, 1900)는 북학파를 하나의 문학 유파로 보고 그 총체적 특징 및 발생, 발전의 법칙을 고찰하였으며 북학파의 대표인물인 박지원의 문학관, 사상의식, 심미의식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북학파의 연행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청대문단과 북학파의 학문수용, 그리고 전파 문제도 논의하였다. 박지원연구에 있어 처음으로 단일한 역사유물주의 연구방

4) 임형택, 『新實學 그 가능성과 방향』, 『한국실학연구』22집, 한국실학회, 2011. 150쪽.

법에서 벗어나 연구시각을 다양화하여 문예심리학, 비교문학, 수용미학 등 다양한 방법론을 결합시켰다는 데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 문헌에서의 중국관련연구라는 과제는 중국학자들에게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21세기에 들어서 중국학계에서는 박지원연구의 붐이라고 할 정도로 박지원에게 집착하게 된다. 김병민에 이어 潘暢和(『북학파의 실학사상과 계몽의의』, 『東疆學刊』, 1991. 第2期), 全紅(『조선문학가 박지원의 북학사상의 모순탐구』, 『연변교육학원학보』, 2006년 第6期), 李岩(『박지원 “열하일기”의 북학사상과 實業책략』, 『東疆學刊』, 2007年 第1期), 楊雨蕾(『18세기 조선북학사상 탐구』, 『절강대학학보』 第4期, 2007), 鄭成宏(『조선북학파의 新華夷觀』, 『동북아논단』, 2008. 第6期.), 趙興元(『18세기 조선학자 박지원의 “북학”』, 『조선 한국역사연구』11, 2011)등 수많은 학자들이 박지원의 북학사상에 주목하게 된다. 상기 논문들은 모두 박지원의 이용후생과 경세제민, 북학사상, 서양인식 등이 『열하일기』에 어떻게 체현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鄭成宏은 북학파를 조선 역사상 “慕華賤夷”, “尊華攘夷”에서 벗어나 “華夷一也”, “師夷長技”의 사상적 비약을 이룬 학자들로 보면서 북학 사상은 정통유학의 계승자로 자부하면서 청조를 역적으로 생각하여 교류를 꺼렸던 조선사대부들에 대한 반기일 뿐만 아니라 민족자존심과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초창기 학자의 연구⁵⁾에서 북학파의 주장을 명조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하고 여진족의 침범을 잊은 일종의 새로운 사대주의라는 견해는 북학파에 대한 오해이며 모독⁶⁾이라고 지적한다.

20세기 90년대 박지원 연구는 북학사상과 이용후생에 주목하였다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박지원의 사상연구는 ‘북학’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점차 ‘화이관’, ‘소중화의식’, ‘주체의식’, ‘이용후생’, ‘중국인식’, ‘서양인식’으로 구체화된다. 적어도 논문제목에서는 ‘북학’이라는 용어를 회피

5) 金明河, 『燕巖朴趾源』, 商務印刷館, 1963, 87쪽.

6) 鄭成宏, 『조선북학파의 新華夷觀』, 『동북아논단』, 2008 第6期, 104쪽.

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 실학계의 반성과 영향때문이 아닌가 싶다. 『열하일기』에 청조의 선진문물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입장은 있었지만 박지원의 중화인식을 ‘북학’이라는 용어만으로 제한시키기에는 너무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즉 박지원의 중국천하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화주의의 극복이라는 사상적 의미를 띠고 있고 흔들리는 조공체제에서 싹튼 비판정신을⁷⁾ ‘북학사상’으로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학파”라는 용어도 될수 있는 한 피하고 대신 “연암그룹”, “연암일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학계에서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 용어는 아니다. 중국학계에서 최근 “북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중 奎紅의 논문은 중국학자들이 박지원의 “북학사상”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재조명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奎紅은 『허생전』과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의 “상업경제적 모순태도”, “명청문화에 대한 모순적인 태도”, “이상국 건설에서의 모순” 등을 논의하면서 박지원의 ‘북학사상’ 역시 발전과 보완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짓는다. 이제 박지원의 사상을 ‘북학’이라는 용어에만 한정하기에 너무 복잡적임을 실감한 논의였다.

姜日天은 (『박지원 “이용후생” 실학의 심층 내포와 그 현대적 지향』, 『한국실학연구』1, 1999) 박지원의 사상을 “利用厚生” 실학의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그의 利用厚生은 현대적 지향성을 띠고 있는 역사 철학 사고이고 이용후생 실학의 실질은 상공업의 발전이며 함께 부귀를 누리는 이상국의 실현과 노동 자체를 해방하는 도덕미의 이상이 박지원의 이용후생의 진정한 의미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박지원의 문학사상을 ‘卽事趣眞’의 현실비판으로 파악하면서(『燕巖朴趾源의 “卽事趣眞”의 문학사상과 역사철학적 의미』, 『當代韓國』, 2001年 第2期) 박지원의 작품은 ‘穢者不穢’의 현실적 초월의지와 ‘忠義者貧賤者之常事’의 역사철학적

7) 임형택, 「‘연행’의 의미와 연행록, 『열하일기』」, 『문명의식과 실학』, 돌베개, 2009. 3.

의미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열하일기』중심의 사상연구경향이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馬駟傳』, 『穢德先生傳』 등 크게 주목받지 않은 소설과 산문에 주목한 박지원 철학적 사상연구의 세부적인 천착이라고 하겠다.

중국에서 실학개념을 자국의 학술사 인식에 도입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실학에 대한 중국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步近智는(『中韓實學思潮之異』, 『韓國學論文集』, 1996.10) 중한 실학 비교 중에 박지원의 실학사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步近智는 조선의 실학사상가들은 “正德, 利用, 厚生”의 유학전통의 사유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를 도덕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용후생”을 실학연구의 핵심내용으로 간주하며 복학을 주도하였는데 명청실학에 비해서 더욱 명확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서학”의 전파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에 비해 박지원은 “師夷”, “制夷”의 탁월한 관점을 내세웠고 적극적으로 청조를 배우고 부민강국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그 외 박지원 문학의 생태미의식(陳冰冰, 郝君峰, 『박지원미학사상의 생태의식』, 『산서사범대학학보』, 2011年 S3期)과 같은 연구는 한국학계에서 박지원의 생태 미의식에 주목하면서 진행된 박지원 사상연구의 새로운 접근이다.

3. 박지원의 산문연구

중국 학계가 박지원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타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포착된 중국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학계의 관심은 박지원의 중국인식⁸⁾과 『열하일기』에서의

8) 王政堯, 『18世紀 朝鮮의 “利用厚生”학설과 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 『清史研究』, 1999年03期.

金柄珉, 『조선 실학과문학과 중국의 관련연구』, 延邊大學出版社, 2007.12.

중국 자취 찾기에 집중되었다. 80년대 吳紹鈞⁹⁾이 처음으로 滿族민속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열하일기』에 기록된 중국, 특히는 만족의 복식 음식, 주거, 예의와 풍속문제, 나아가 반선과 황교의 형상 및 그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을 하였다.¹⁰⁾ 또한 유리창¹¹⁾, 북방시장¹²⁾, 청대禁書¹³⁾, 천주당¹⁴⁾, 문학¹⁵⁾, 희곡과 환술¹⁶⁾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유의해야 할 연구는 비교문학 이미지학이론을 도입하여 『열하일기』에서 타자의 시선에 비쳐진 중국형상을 찾고 청나라 현실에 대한 誤讀을 분석한 논문들이다. 2001년 『比較文學形象學』¹⁷⁾이 출판되면

-
- 9) 吳紹鈞, 「“열하일기”와 만족민속」, 『연변대학학보』, 1984年第2期.
- 10) 劉廣銘, 「朝鮮朝語境에서의 만주족형상 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6.
趙興元, 「건륭시기 연행사들의 눈에 비친 만족민속」, 『만족연구』, 2007年 第2期.
劉明新, 「만족의 복식과 그 문화적 의미」, 『중앙민족대학학보』, 2006年 第5期.
錢蓉, 赫曉琳, 「“연행록”에 보여진 康乾시기 중국민속문화」, 『사학월간』, 2010年 6期.
徐東日, 「조선조 연행사 눈에 비친 만족 형상」, 『東疆學刊』 2011年 第4期.
葛兆光, 「이웃집의 낯선 이-청대 중기 조선연행사의 눈에 비친 북경의 서양선교사」, 『中國文化研究』, 2006年夏之卷.
- 11) 楊雨蕾, 「조선 연행록에 기재된 북경 유리창」, 『中國典籍과 문화』, 2004年 第4期.
禹尙烈, 「조선 연행사와 중국유리창」, 『東疆學刊』, 2004年 第2期.
- 12) 劉靜, 「연행록으로 보는 18세기 중국 북방시장」, 『북경사회과학』
徐東日, 「조선조 연행사의 시선에 비친 중국 북방시장과 형상」, 『東疆學刊』, 2014年 第1期.
- 13) 楊雨蕾, 「조선에 유입된 청대금서」, 『문헌』, 2006年 第2期.
- 14) 黃時鑒, 「조선 연행록에 기재된 북경 성당」, 『한국학논문집』, 2000年.
祁慶富, 「조선서학의 계몽과 북경 성당」, 『한국학논문집』, 2007年 第2期.
- 15) 陳大康, 漆瑗, 「“열하일기”와 중국명청소설 희곡」, 『명청소설연구』, 1999年 第2期.
趙山林, 「한 조선학자가 보는 중국희곡-“열하일기”를 보면서」, 『상해희극』, 2004년 1期.
- 16) 起鳳, 「조선사신의 눈에 비친 청대 幻術」, 『잡기와 마술』, 2011年 第4期.
- 17) 孟華, 『比較文學形象學』, 北京大學出版社, 2001.7.
이 책에서는 형상학에 관한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Jean-Marc Moura, Daniel-Henri Pageaux을 비롯한 구라파 비교문학 학자들의 논문 13편을 번역하여 수록한 논문집이다.

서 사행문학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했던 것이다. 열하일기에서의 중국형상에 대한 연구는 徐東日의 논문¹⁸⁾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열하일기』에 그려진 청 황제, 관우, 만주 등 인물형상과 자금성, 산, 북방시장 등 다양한 중국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박지원의 중국인식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 청대의 진면모와 실학파의 중국인식을 재해석하려고 하였다. 馬婧妮의 박사학위 논문¹⁹⁾ 또한 『熱河日記』중의 중국 지리형상, 중국인형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중국의 誤讀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劉森²⁰⁾ 역시 “열하일기”중에 그려진 6세 班禪形象에 주목하여 악마화된 티베트 불교와 라마교에 대해 논의하고 박지원의 중국 정세인식에 대해 재고하였다. 이미지학(imagologie)이란 문학작품 중에 체현된 ‘異國’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미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성 또는 타자성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나’와 대립되는 타자와의 ‘차별화’의 문제나 ‘나’와 유사하거나 다르지 않은 타자와의 ‘동화’의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이론을 연행록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신선한 발상이겠지만 확실한 이론 하에서 실제 작품을 조명하려면, 즉 이념이 실제에 선행된다면 작품에서 보여주려는 의도를 자세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²¹⁾ 『열하일기』중의 중국형상연구에는 이미지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모면하기 위하여, 단일한 방법론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병행한 가치 있는 논문들도 있지만 이론에만 치우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논문들도 일부 있다.

18) 徐東日, 「조선 연행사의 눈에 비친 관우형상」, 『東疆學刊』, 2008年02期.

「조선 연행사의 눈에 비친 건륭형상」, 『東疆學刊』, 2009年04期.

『조선조 사신들의 눈에 비친 중국형상』, 中華書局, 2010.12.

曹圭益, 徐東日, 「“燕行錄”중의 千山, 醫巫閭山高과 首陽山形象」, 『延邊大學學報』, 2008年01期.

19) 馬婧妮, 「“熱河日記”中的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20) 劉 森, 「“열하일기”중의 6세 班禪形象」, 『민족문학연구』, 2012年 第6期.

21) 朴香蘭, 「연행록 소재 필담의 연구: 홍대용, 박지원 등을 중심으로」, 2010.8, 5쪽.

박지원의 중국인식 나아가 실학과문학과 청대문화의 관련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金柄珉, 徐東日의 『朝鮮實學派文學과 中國의 關聯研究』(연변대학 출판사, 2007.12)가 대표적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박지원의 눈에 비친 중국 건축문화, 민속문화, 상업문화, 문학과 예술을 자세하게 고찰하고 실학과와 청대문인의 교류, 청대문학에 대한 비판과 수용, 중국문학에 끼친 실학파의 영향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도 깊이있게 논의를 펼쳤다.

이의 중국에 대한 여행사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葛兆光의 논저²²⁾를 포함하여 18세기 청대와 조선과 문화교류, 문화인식 비교연구에서²³⁾ 박지원은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일부 논문들은 동시대에 창작된 서사물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비교되는 대화적 다의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중국문화의 일방적 영향만을 강조한 감이 없지 않다. 이 질적이고 생소한 두 문명의 접촉은 충돌과 갈등이 따르고 그 수용에는 복잡한 과정이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화의 차이를 『열하일기』에 소재된 중한문인의 筆談에서 추출하고 문화의 상대성과 고유성을 자각해 나가는 문인들의 사상적 전변을 고찰한 「필담을 통해 본 한중 문화인식 비교」²⁴⁾는 일방적인 영향연구와 거대담론에 치우친 기존연구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겠다.

22) 葛兆光, 『想像과 異域: 이조조선 한문 여행록 札記』, 中華書局, 2014. 1.

23) 任桂淳, 「18세기 청문화가 조선에 대한 영향」, 『淸史研究』, 1995년 4期.

李敦球, 「18세기 후기 조선 진보적 지식인의 중국외교사행」, 『세계역사』, 1998년 第3期.

王政堯, 赫曉林, 「여행록과 청대 중조문화교류」, 『한국학논문집』, 1998년.

廉松心, 「18세기 중조문화교류연구」, 중앙민족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5

牛林傑 李學堂, 「17-18세기 중한문인사이 문화교류와 문화오독」, 『한국연구논총』, 2007년 第2期.

陳 明, 「“吸毒石”과 “淸心丸”-여행사와 선교사의 약물교류」, 『중화문사논총』, 2009년 第1期.

24) 朴香蘭, 「필담을 통해 본 한중 문화인식 비교-박지원과 홍대용을 중심으로」, 『東疆學刊』, 2014년 第3期.

문화론적 측면에서 『열하일기』를 재해석한 논문도 있다. 許明哲은(『朴趾源 “熱河日記”의 문화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논문, 2009) 문화론적 접근으로 『열하일기』에 투영된 중국의 기물문화, 민속문화, 예술문화, 그리고 소설 『호질』과 『허생전』의 문화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열하일기』의 내재적 문화가치와 시대적 의의를 재론하였다.

보다시피 박지원연구 초기부터 중국학계에서는 『열하일기』가 실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대표 저술이라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연행록 문헌군의 실체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열하일기』를 ‘여행문학’, ‘기행문학’, ‘여행자문학론’ 등의 입장에서 알맞은 문학적 접근 방법론을 모색하고 중국의 실상을 탐색하였던 것이다.

연행록이 사학계에서 주목받으며 『열하일기』에서 한중역사를 재고하려는 연구도 동반되었다. 박지원의 중국인식보다는 『열하일기』의 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중국청대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것이다. 廉松心²⁵⁾은 『열하일기』에서 청왕조가 실시한 한족 통제정책과 蒙藏지역의 통제정책을 고찰하였고 張雙志²⁶⁾는 『열하일기』에서 티베트의 역사를 찾으려 하였으며 楊雨蕾²⁷⁾는 명조와 청조 때 조선의 조공노선과 사행노선의 변화를 자세히 고찰하면서 『열하일기』의 노선을 인용하였다.

于冬梅의 『“열하일기”와 청대 중국어 官話史 연구』는(『동북사대학보』, 2013년 第6期) 기존 연구와 달리 어학적 접근으로 『열하일기』에서 異音과 諧音을 찾고 官話의 어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박지원의 사상과 중국인식에만 집중되었던 기존연구의 모식에서 탈피하여 어학적으로 접근하였다는 것은 실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박지원의 연행록이 중국사학계에 사적 근거를 제공하였음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연구의 중심이 조선문인의 입장에서 그려진 중국형상에 치우치다보니 역사

25) 廉松心, 『“열하일기”와 청대 민족정책연구』, 『북화대학학보』, 2007년 第1期.

26) 張雙志, 『18세기 조선학자가 본 청대 티베트-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中國藏學』, 2007년 第3期.

27) 楊雨蕾, 『명청시기 조선 조천, 연행 노선 및 그 변천』, 『역사지리』, 2006년.

적 규명에 대한 연구는 아직 결핍하다.

18세기 후반 세인들의 문체에 영향을 끼친 燕巖 朴趾源의 산문은 당대에 “燕巖體”로 명명되어 불리어졌을 만큼 개성적이고 고유한 작가적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정조는 “이덕무, 박제가 등의 문체가 완전히 패관소품에서 나왔다”²⁸⁾고 하면서 “근래의 문풍이 이와 같은 것은 그 근본을 궁구한 즉 연암의 죄 아님이 없다²⁹⁾”라고 하여 “燕巖體”가 이 시기 패관소품체의 한 본보기이며 근원임을 지적했다.

박지원의 산문에 대한 문학적 접근, 즉 산문의 창작원리나 구조적, 형식적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박지원산문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는李 崝의 논문이다. 그는 「연암 寫景散文의 예술특징 작품의 예술특색」(『당대한국』, 2004年 第1期)에서 박지원의 寫景散文은 실용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寓情于景”, “情景交融”, “意象融會”를 추구하고 산수에 감정을 기탁하였기에 서정적이고 독자를 감회시킬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지원의 사실주의 문학론은 동양과 서양회화 및 회화이론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산문에 체현된 문학적 특징을 논의하였다.³⁰⁾ 陣冰冰은 박지원의 소품문이 公安派문학의 영향을 받아 “眞”, “趣”를 추구하여 문학에 현실생활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物我一體”를 창작기초로 하였으며 박지원은 한적한 생활 속에서 세속의 번뇌를 잊고 친구와 예술이 주는 쾌락을 즐겼다고 하였다.³¹⁾ 본인의 줄고 「연행록 소재 필담의 문학형식 연구」(『世界文學評論』, 2011年 第2期)에서는 중한문인들의 소통과 지적교류의 가치에 주목하여 『열하일기』에 소재된 筆談을 독립적 텍스트로 보고 그 문학적 형식과 창작의

28) 『홍재전서』권 165, 日得錄, 文學, 장 10(영인본, 권5, 29면.) “李德懋朴齊家輩文體全出於稗官小品”

29) 朴趾源, 『燕巖集』권2, 煙湘閣選本, 장 12, 「答南直閣公轍書 原書附」(경인문화사 영인본, 1979, 33면.) “近日文風之如此 原其本 則莫非朴某之罪也”

30) 李 崝, 「연암 박지원의 화론과 문학진실관」, 『민족문학사연구』7, 1995.

31) 陣冰冰, 「박지원 소품문의 심미특징」, 『북경제2외국어학원 학보』, 2013년 第4期.

도 및 문학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4. 박지원의 소설연구

박지원의 실학사상에 논의하면서 초창기 중국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박지원의 한문소설이었다. 정관룡(1978)은 박지원이 실상사상가라는 전제 하에 소설에서 보여진 조선 선비의 타락, 부패상을 비판하고 고질화된 조선봉건체제의 병리적 단면을 파악하였으며 『허생전』에서 체현된 박지원의 이용후생의 사회개혁사상에 주목하였다. 채미화는(『박지원소설의 근대사상요소와 예술형식탐구』, 『연변대학학보』, 1986年 第4期) 박지원 소설의 근대사상에 주목하여 소설에 체현된 社會理想과 예술형식에서 근대성을 파악하면서 박지원 소설은 근대소설형식에 가장 근접한 소설로서 조선소설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였다. 申相星 역시(『한국18세기 후기 박지원소설 재검토』,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1995年 第3期) 박지원소설은 문학성은 결핍하지만 소설에 체현된 풍자성, 상징성, 그리고 실학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주체의식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지원소설은 전통고전소설의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20세기 박지원 소설연구는 워낙 수량도 적었거니와 얼마 안 되는 소설연구도 다분히 주제 중심의 근대성 탐구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이는 광복이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한 ‘근대화’프로젝트에서 실학을 자국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삼고 실학의 학문적 성격을 ‘근대지향’으로 해석했던 한국의 초창기 연구경향과 관계가 없지 않다. 또한 시대자체가 경직되고 단일화한 사유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였고 더욱이 한국학연구의 시작단계에서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지원소설연구는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미학연구, 풍자성 연구, 비교연구, 원형비평 등 다각적인 고찰을 시도하였

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는 김병민의 소설연구이다. 그는 『호질』 연구에 원형비평과 정신분석학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범의 원형적 본질을 해석하고 범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의 문화의식 및 미적 효과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박지원소설 “범”의 원형의미-범의 형상을 중심으로』, 『東疆學刊』2002年 第3期) 또한 박지원과 노신의 근대지향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근대지향의 태동과 조선지식인의 자각-연암에서 노신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학연구』36권, 2005.) 두 작가의 비교가능성을 확인하고 『호질』과 『광인일기』, 『광문전』과 『아Q정전』, 『열녀함양박씨전』과 『축복』을 비교 고찰하여 박지원소설의 문화정신의 선구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노신소설 문화정신의 집대성적인 업적을 가일층 확인하였다. 이는 한중비교문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준 창의적 발상이었다.

박지원 소설의 풍자성에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의 일이다.³²⁾ 박지원소설 연구 초기부터 풍자성에 주목하였던 한국에 비하면 많이 늦은 편이지만 吳敬梓의 『儒林外史』와 비교하여 그 풍자성을 고찰한 논문도 몇 편 된다. 譚紅梅, 陳冰冰과 于潔은 박지원과 吳敬梓 두 작가의 작품창작의 유사성과 특이성을 비교하고 예술성과 수사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단순한 풍자성 연구보다는 비교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하지만 단지 『유림외사』한 작품과의 비교만 시도했다는 점은 아쉽다.

중국학계에서의 박지원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만약 한국에서의 박지원연구를 ‘近代志向’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중국의 박지원 연구는 청나라문화에 대한 박지원의 인식과 조선의 영향, 그

32) 譚紅梅, 『“范進中舉”와 “양반전”의 풍자예술 비교』, 『연변대학학보』, 2008年, 第4期, 曹文杰, 『조선후기 단편 풍자소설 “양반전” 연구』, 『安徽文學』, 2008年, 第11期, 金清子, 『“兩班傳”의 풍자예술분석』, 『短篇小說』, 2012年 20期, 陳冰冰, 『吳敬梓와 박지원의 풍자작품 비교』, 『山西師大學報』, 2011年 2期, 于潔, 『박지원소설의 풍자예술 연구-“유림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석사학위 논문, 2011.05

리고 그의 실학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자체의 창작원리나 구조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5. 박지원 연구의 과제와 전망

중국학계의 박지원연구는 그동안 박지원의 연행체험에 주목하여 여행 주체의 사상적 전환과 중국의 제반양상을 모색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금까지 박지원연구는 작품과 사상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박지원 문학의 특징에 대한 탐구, 나아가 연행록이라는 『열하일기』의 기행문특징에 주목한 역사인식, 문화교류, 형상학연구, 중국사연구까지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의 박지원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연구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1) 박지원의 산문연구는 『열하일기』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연암집』에 수록된 詩, 序, 記, 論, 狀, 跋, 說, 疏, 策, 祭文, 哀辭, 碑誌銘 등 장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鐘北小選』과 같이 박지원의 글에 대한 동시대 문인들의 비평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다. 『鐘北小選』이라는 텍스트 내에서 박지원과 李德懋라는 두 창조적인 지성이 보여주는 정신의 共鳴과 미적 교감의 양상은 비단 한국문학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³⁾ 이제 산문연구도 특정작품보다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산문을 유의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품들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박지원 문학 연구가 전면적이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2) 박지원의 소설연구 역시 『양반전』, 『허생전』, 『호질』세 작품에만

33) 박희병, 「“중북소선”의 평어 연구」, 『민족문학사연구』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160쪽.

치중되고 『馬駟傳』, 『穢德先生傳』, 『閔翁傳』, 『金神仙傳』, 『廣文者傳』, 『虞裳傳』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청대의 소설과 박지원의 소설 비교연구라든지, 경향이 비슷한 작가와의 비교연구도 극히 드물다. 그동안 소홀히 하여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문소설들의 시기에 따른 수직관계연구, 혹은 동아시아라는 매개항의 설정에 따른 수평적 비교를 통해서라면 소설의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 즉 고전의 이야기와 현대소설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 텍스트의 대화성을, 또한 동시대에 창작된 서사물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비교되는 대화적 다의성을 살펴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홀시되었던 소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숨어있는 문학의 새로운 문제를 다시 발견하는 일이 박지원소설문학, 더 나아가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향후 과제가 아닐까 싶다.

3) 소품문을 비롯한 산문의 비교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청조 대표적 산문가들뿐만 아니라 동시대 조선문인들의 산문 비교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구도 일방적인 영향연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서로 영향의 우선권을 다투는 제국주의적 담론인 비교문학과 자국문학을 자국문학 안에서만 접근하는 내재적 발전론을 넘어서 한, 중, 일 세 나라의 문학을 일종의 수평적 비교의식 아래 함께 검토하고 어떻게 근대성을 지향해 갔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점검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4) 『課農小抄』, 『忘羊錄』 등 작품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課農小抄』는 박지원의 이용후생사상의 실천으로, 농업 생산력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연암 박지원의 사회개혁사상도 집중적으로 체현된 작품이다. 『忘羊錄』 또한 박지원과 중국문인 王民皞, 尹嘉銓, 세 사람이 양국의 음악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심층토의로서 음악원리, 음악의 정치문화적 의의, 음악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해박한 전문지식을 펼친 筆談이다. 양을 통째로 썬 놓고도 필답에 빠져 권하지도 못할 정도로 진솔하고

흥미진진하게 나눈 필담이지만 음악이론의 부족 등 원인으로 아직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고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5) 박지원과 중국문인들이 나눈 筆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과 중국문인들이 나눈 필담은 중한 문인들의 교류양상과 사상적 동향을 가장 극명적으로 보여준 문학적 성과물이다. 필담에는 조선문인의 중국인식 뿐만 아니라 중국지식인들의 학술적 동향과 정세인식도 함께 기록되어 있으며 의외로 한중 양국 문인들의 견해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한중 문인의 필담에 주목하여 그 인식차이를 논의하고 동시기 혹은 그 전 시기 기타 연행록 소재 필담과의 비교고찰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6) 박지원과 교유한 문인들의 종적과 왕래한 서찰을 발굴하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한다. 연행록의 사적가치가 인정되면서 일부 중국문인들의 작품들과 박지원과 나눈 서찰도 연이어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데 이는 박지원의 문학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2012년 한국에서 출판된 『연민문고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 총서』전20권³⁴⁾은 객관적 여건으로 자료조사가 어려웠던 중국학자들에게 있어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사본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학계뿐만 아니라 중국학계에도 새로운 연구 붐을 일으킬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

7) 문학계, 사학계 뿐만 아니라 타 분야 학자들의 박지원연구도 기대해볼 만 하다.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官話史를 고찰하고 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실로 참신하다. 『열하일기』연구에서 중국과 한국학계의 입장, 견해,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서로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면 연암 박지원 연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민문고소장 연암박지원작품필사본 총서』, 문예원, 2012.9

참고문헌

- 葛兆光, 『이웃집의 낯선 이-청대 중기 조선연행사의 눈에 비친 북경의 서양선교사』, 『中國文化研究』, 2006年夏之卷.
- 『想像과 異域: 이조조선 한문 연행록 札記』, 中華書局, 2014. 1.
- 姜日天, 『박지원 “이용후생” 실학의 심층 내포와 그 현대적 지향』, 『한국 실학연구』1, 한국실학학회, 1999, 189-217쪽.
- 『燕巖朴趾源의 “卽事趣眞”의 문학사상과 역사철학적 의미』, 『當代韓國』, 2001年 第2期, 78-82쪽.
- 祁慶富, 『조선서학의 계몽과 북경 성당』, 『한국학논문집』, 2007年 第2期, 76-88쪽.
- 起鳳, 『조선사신의 눈에 비친 청대 幻術』, 『잡기와 마술』, 2011年 第4期, 52-54쪽.
- 金柄珉, 『조선중세기 북학파문학 연구』, 1990, 연변대학출판사.
- 『박지원소설 “범”의 원형의미-범의 형상을 중심으로』, 『東疆學刊』 2002年 第3期, 57-64쪽.
- 『동아시아 근대지향의 태동과 조선지식인의 자각-?에서 노신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학연구』36권, 한국한문학회, 2005, 13-36쪽.
- 『조선 실학과문학과 중국의 관련연구』, 延邊大學出版社, 2007. 12.
- 金柄珉, 徐東日, 『朝鮮實學派文學과 中國의 關聯研究』, 연변대학 출판사, 2007. 12.
- 金清子, 『“兩班傳”의 풍자예술분석』, 『短篇小說』, 2012年 20期, 56-57쪽.
- 譚紅梅, 『“范進中舉”와 “양반전”의 풍자예술 비교』, 『연변대학학보』, 2008年, 第4期, 66-69쪽.
- 馬婧妮, 『“熱河日記”중의 中國形象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7.

- 朴香蘭, 「필담을 통해 본 한중 문화인식 비교-박지원과 홍대용을 중심으로」, 『東疆學刊』, 2014年 第3期, 15-21쪽.
- 「연행록 소재 필담의 문학형식 연구」, 『世界文學評論』, 2011年 第2期, 221-229.
- 朴熙秉, 「“중북소선”의 평어 연구」, 『민족문화사연구』38, 민족문화사학회, 2008, 160-202쪽.
- 潘暢和, 「북학파의 실학사상과 계몽의의」, 『東疆學刊』, 1991. 第2期, 44-50쪽.
- 步近智, 「中韓實學思潮의 차이」, 『韓國學論文集』, 1996.10, 116-124.
- 徐東日, 「조선조 연행사 눈에 비친 만주 형상」, 『東疆學刊』 2011年 第4期, 1-8쪽.
- 「조선조 연행사의 시선에 비친 중국 북방시장과 형상」, 『東疆學刊』, 2014年 第1期, 7-14쪽.
- 「조선 연행사의 눈에 비친 관우형상」, 『東疆學刊』, 2008年02期, 36-41쪽.
- 「조선 연행사의 눈에 비친 건륭형상」, 『東疆學刊』, 2009年04期, 13-19쪽.
- 『조선조 사신들의 눈에 비친 중국형상』, 中華書局, 2010.12.
- 申相星, 「한국18세기 후기 연암소설 재검토」,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1995年 第3期, 89-95쪽.
- 楊雨蕾, 「조선 연행록에 기재된 북경 유리창」, 『中國典籍과 문화』, 2004年 第4期, 55-63쪽.
- 「조선에 유입된 청대금서」, 『문헌』, 2006年 第2期, 183-191쪽.
- 「명청시기 조선 조천, 연행 노선 및 그 변천」, 『역사지리』, 2006년, 262-273쪽.
- 「18세기 조선북학사상 탐구」, 『절강대학학보』 第4期, 2007.7, 85-93쪽.

- 廉松心, 「18세기 중조문화교류연구」, 중앙민족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4.
- 5.
- 「“열하일기”와 청대 민족정책연구」, 『북화대학학보』, 2007年 第1期, 70-74쪽.
- 吳紹鈺, 「“열하일기”와 만족민속」, 『연변대학학보』, 1984年 第2期, 106-115쪽.
- 王政堯, 「18世紀 朝鮮의 “利用厚生”학설과 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 『清史研究』, 1999年03期, 31-37쪽.
- 王政堯, 赫曉林, 「연행록과 청대 중조문화교류」, 『한국학논문집』, 1998년, 320-327쪽.
- 于 潔, 「박지원소설의 풍자예술 연구-“유림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변대학 석사학위 논문, 2011.05
- 于冬梅, 「“열하일기”와 청대 중국어 官話史 연구」, 『동북사대학보』, 2013年 第6期, 272-272쪽.
- 牛林傑 李學堂, 「17-18세기 중한문인사이 문화교류와 문화오독」, 『한국연구논총』, 2007年 第2期, 334-350쪽.
- 禹尙烈, 「조선 연행사와 중국유리창」, 『東疆學刊』, 2004年 第2期, 10-13쪽.
- 劉廣銘, 「朝鮮朝語境에서의 만주족형상 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 논문, 2006.
- 劉明新, 「만족의 복식과 그 문화적 의미」, 『중앙민족대학학보』, 2006年第5期, 124-129쪽.
- 劉 森, 「“열하일기”중의 6세 班禪形象」, 『민족문학연구』, 2012年 第6期, 148-155쪽.
- 劉 靜, 「“燕行錄”으로 보는 18세기 중국 북경시장-중조문화교류와 문화차이」, 『北京社會科學』, 2006年03期, 34-38쪽.
- 李敦球, 「18세기 후기 조선 진보적 지식인의 중국외교사행」, 『세계역사』,

1998年 第3期, 81-88쪽.

李 岩, 「연암 寫景散文의 예술특징 작품의 예술특색」, 『당대한국』, 2004年 第1期, 54-57쪽.

「연암 박지원의 화론과 문학진실관」, 『민족문화사연구』7, 1995, 141-155쪽.

「박지원 “열하일기”의 북학사상과 實業책략」, 『東疆學刊』, 2007年 第1期, 1-6쪽.

任桂淳, 「18세기 청문화가 조선에 대한 영향」, 『清史研究』, 1995年 4期, 28-39쪽.

任范松, 「박지원의 유물주의미학사상」, 『연변대학학보』, 1981년 第4期, 64-71쪽.

林熒澤, 「新實學 그 가능성과 방향」, 『한국실학연구』22, 2011, 147-167쪽.

張麗娜, 「중국에서의 박지원연구」, 『當代韓國』, 2012.1, 119-128쪽.

「“열하일기” 연구」, 중앙민족대학 박사학위논문, 2013.5.

張雙志, 「18세기 조선학자가 본 청대 티베트-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中國藏學』, 2007年 第3期, 33-39쪽.

全 紅, 「조선문학가 박지원의 북학사상의 모순탐구」, 『연변교육학원학보』, 2006년 第6期, 13-20쪽.

鄭判龍, 『조선 실학과문학과 박지원의 소설』, 연변대학학학보, 1978년 제 3호, 61-64쪽.

錢蓉, 赫曉琳, 「“연행록”에 보여진 康乾시기 중국민속문화」, 『사학월간』, 2010年 6期, 127-130쪽.

鄭成宏, 「조선북학파의 新華夷觀」, 『동북아논단』, 2008. 第6期, 98-105쪽.

曹圭益, 徐東日, 「“燕行錄”중의 千山, 醫巫閭山高과 首陽山形象」, 『延邊大學學報』, 2008年 01期, 57-63쪽.

趙興元, 「건륭시기 연행사들의 눈에 비친 만족민속」, 『만족연구』, 2007年 第2期, 83-90쪽.

- 『18세기 조선학자 박지원의 “북학”』, 『조선 한국역사연구』11, 2009, 217-228쪽.
- 朱七星, 『박지원의 철학사상연구』, 『철학연구』, 1981년 第7期, 53-58쪽.
- 趙山林, 『한 조선학자가 보는 중국희곡-“열하일기”를 보면서』, 『상해희극』, 2004년 Z1期, 44-45쪽.
- 陳大康, 漆瑗, 『“熱河日記”와 中國 明清小說戲曲』, 『明清小說研究』, 1999年 02期, 186-194쪽.
- 陳 明, 『“吸毒石”과 “清心丸”-연행사와 선교사의 약물교류』, 『중화문사논총』, 2009年 第1期, 311-346쪽.
- 陳冰冰, 『박지원 소품문의 심미특징』, 『북경제2외국어학원 학보』, 2013년 第4期, 63-68쪽.
- 『吳敬梓와 박지원의 풍자작품 비교』, 『山西師大學報』, 2011年 2期, 52-54쪽.
- 陳冰冰, 郝君峰, 『박지원미학사상의 생태의식』, 『산서사범대학학보』, 2011年 3期, 84-86쪽.
- 陳紅民, 『만청외교의 또 하나의 곤경:1998년 조선파견사건을 중심으로』, 『歷史研究』, 2008年 02期, 119-131쪽.
- 蔡美花, 『박지원소설의 근대사상요소와 예술형식탐구』, 『연변대학학보』, 1986年 第4期, 86-94쪽.
- 黃時鑒, 『조선 연행록에 기재된 북경 성당』, 『한국학논문집』, 2000年, 152-167쪽.
- 許明哲, 『朴趾源 “熱河日記”의 문화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논문.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Research on Park Ji-won in China

PIAO XIANGLAN

The research on Park Ji-won, started in 1970s, has been worked on for 40 years imperceptibly. Such research is not strange to Koreanology researchers as well as Chinese literature researchers. This essa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Park Ji-won's research among Chinese academia in detail, discussed the new direction and prospect of the research on Park Ji-won.

The focus on Park Ji-won in Chin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on Park Ji-won, the *Yeolha Diary* had been the representative work which sharply shows the living existence among Silhak scholars. With the reification of *Yon-haeng-rok* and relating references, lots of accessible methodologies were supplied for journey literature, travel description, tourists literature theories and so on from the *Yeolha Diary*, which shows the exploration of the living existence in China. However, regardless of novels or proses, researches are always focused on representative works. When it comes to the comparison between novels in Qing Dynasty and novels written by Park Ji-won, the comparison between Park Ji-won and similar writers, it's quite hard to find some investigational problems and conclusions in detail. Now by the method of lateral thinking, this essay investigated the

literatur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ow did those literature obtain modernity and which direction will it go to explore postmodernity All above shows the new attempt within an open mind is essential.

Key Words : Park Ji-won, China, Present condition, Prospect

■ 논문접수 : 2016년 3월 27일

■ 심사완료 : 2016년 8월 3일

■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